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사 통향

경제 통향

기획특집



KC코트렐 전풍림 감사님

“일하기 좋은 일터를 만듭시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KC가족의 일원으로 여러분과 함께 일을 시작한 지도 벌써 7개월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제가 느낀 것은 참 따뜻한 곳이구나...작지만 강하고, 여기야 말로 젊은 이가 내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곳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매우 행복합니다.

미국의 일하기 좋은 기업(GWP : Great Work place) 만들기 창시자인 로버트 레버링 박사는 좋은 일터(Great Place to Work)란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렸습니다.

“보수, 복리후생이 절대 조건이 아니라, 구성원간에 신뢰(Trust)가 높고, 회사와 일에 대한 자부심(Pride)이 생김, 동료와 일하는 재미(Fun)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IMF이후에 피부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영원한 직장은 없고 영원한 일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평생을 일해야 하므로 내가 하는 일이 절대적으로 재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 일을 할 때 신바람이 나고 뜨거운 열정이 불끈 솟아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발전하여 진정한 프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한국의 젊은 스포츠인 중에는 동양인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룩한 친구들이 많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김연아, 박태환, 모태범, 이승훈, 신지애 등은 모두 이전의 선수와는 달리 자신의 게임을 즐기면서 한 결과 그와 같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하는 그 일이 즐거움은 물론 그 일을 통해 보람을 느낄 수 있다면 금상첨화가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지구는 환경오염으로 엘니뇨 현상 등 몸살을 앓고 있어 세계 정상들의 화두가 “후손들에게 좋은 환경의 지구를 물려 주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종사하고 있는 이 녹색사업은 또 얼마나 가치 있고, 인류행복에 기여하는 보람 있는 일입니까?

그런 일을 하는 우리 KC코트렐 가족 모두가 똘똘 뭉쳐 우리는 한 식구라는 생각으로 서로 아끼고 보듬어 주고 사랑해 주어 슬픔과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바로 우리 KC코트렐 이야 말로 가장 일하기 좋은 일터가 아닐까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저의 의견에 동의하리라 믿습니다.

매일경제 신문에서 몇 년 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삼성전자의 평균 근무기간이 불과 6년7개월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 회사는 근무하기가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이와 같은 일하기 좋은 일터의 근간에는 인간존중 사상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 일터가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하에서 한 사람도 다치거나 건강을 잃는 가족이 없이 무재해 사업장이 되어야 합니다. 대표이사님께서서는 항상 이 점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개인의 발전과 회사의 발전이 동시에 이루어 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KC-Network사 가족 여러분!!! 우리 각자는 자신의 일을 즐기고 뜨거운 열정으로 개인은 최고의 전문가로, 회사는 Global Leading Company로 발전하도록 우리 모두 정진합시다.

저는 KC Network사가 “세계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일터”가 되도록 이태영 사장님을 보좌하고 여러분을 후원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여러분 이 더위에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도 평안하시어 행복하십시오~~~~~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사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Lodge Cottrell India] 개소식

지난 7월16일 인도법인의 사무실 개소식 행사가 직원들과 두산중공업 등 외부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촐하게 진행되었습니다.

Tape Cutting을 및 푸자(한국의 고사)를 하고, 이태준 법인장의 인사와 KC그린홀딩스 김정완 전무의 축하 말씀을 들으며 외부인들의 건배사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축하 메시지에 감사를 드립니다.

Lodge Cottrell India Project Manager
진준상(junsang@lodgecottrellpvt.com)



[KC Cottrell Vietnam] 오인석 법인장 취임

지난 7월 1일 KC코트렐 베트남 법인에 오인석 법인장이 새로 부임하였습니다. 오인석 법인장은 KC코트렐 해외사업부에서 근무, Lodge Cottrell USA에서 약 1년간 근무하는 등 해외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베트남 법인의 법인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법인장 취임을 축하드리며, 이번 부임을 계기로 KC Vietnam이 더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KC그린홀딩스 지원팀 김현주
(hyunjoo@kcgreenholdings.com)



직원 단체사진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사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KC Cottrell] 2010 APC Round Table 참가

지난 7월 19일 ~ 20일간 Charlotte 에서 개최된 APC Round Table & Expo 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화씨 100도를 넘으면서 가장 더운 여름이라는 뉴스가 계속 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환경 관련 분야의 경쟁/협력 업체들과 발주처를 함께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APC Round Table & Expo 는 미국 내 환경산업 관련된 단일 Conference로 는 가장 큰 규모이며, 특히 발주처 모임을 함께 주최하고 있어 미국 내 환경 관련 업체들과 기존 및 잠재 고객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더운 날씨와 최근 미국의 경기 상황에 영향에도 300여 명의 발주처 관계자들과, 70여 개 환경 관련 업체가 전시회에 참가하였으며, 이 중 우리 회사가 한국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당당히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이태영 사장님과 박기서 전무님은 미국에서도 화려한 (?) 인맥을 자랑하시면서 연예인 수준의 스케줄로 전시회장과 Conference 를 주름잡으셨습니다. 전시회에 나란히 참가한 우리 회사와는 특별한 관계인 NWL 사와 앞으로 특별한 관계가 될 NOL-TEC 부스까지 합치면 우리회사가 미국 환경 시장에서 활발하게 움직일 좋은 시기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또한, 말로만 듣던 LCI 직원들과 함께 전시회를 참가한 시간도 서로를 이해하는 데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지만 한술밥을 먹는 식구라는 생각을 하는 모습은 막연히 생각하던 느낌과 상당히 달랐습니다. 기억에 남는 것은, 전시회에서 만난 미국 내 고객들이 LCI에 대해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던 순간이었습니다. 몇몇 고객 분들은 LCI 직원들이 얼마나 성실하고, 늘 듣는 자세로 고객들의 필요를 맞추어 주는가에 대하여 살짝 침이 될 정도로 칭찬을 하시기도 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들간의 일정이 우리 회사의 지난 수십 년간의 성과를 초 단기 속성 과정으로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배울 수는 없겠지만, 그간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배우는 데는 충분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제가 이름처럼 재수가 좋아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었지만, 다른 분들께도 이런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미국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KC와 LCI에 재수가 대박 날 때까지!!!!

KC코트렐 발전민수사업부 김재수 선임
(jaesoo@kc-cottrell.com)



전시회 사진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포스코, 印泥 합작제철소 설립 임박 금주 중 JV설립 조인식 가질 듯 1단계 사업 9~10월경 착공 전망

포스코(회장 정준양)의 첫 해외 제철소 프로젝트가 조만간 성과를 맺는다. 포스코와 인도네시아 국영철강업체인 크라카타우스틸은 수일 내로 일관제철소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조인식을 가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합작법인 설립 이후 9~10월경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연산 600만톤 규모로 지어질 합작제철소는 두 단계에 걸쳐 진행되며, 양사의 총 투자액은 50억~60억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포스코가 약 55%의 지분율로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양사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양사 대표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합작법인 설립 조인식을 가질 예정이며, 이후 9월이나 10월경 부지조성 공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1단계 연산 300만톤급 고로는 2013년말 또는 2014년초에 가동될 것으로 예상되며, 1단계 완공 이후 2단계 공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석탄 등 인도네시아의 광물자원 공동개발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합작제철소는 인도네시아 자바섬 북서안의 항구도시인 칠레콘시에 위치한 크라카타우스틸 공장 인근의 유휴부지에 짓는다. 이곳은 크라카타우스틸이 사용하는 함탄, 용수, 전력 등의 기반 인프라가 모두 갖춰져 있어 투자효율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도 양사의 합작사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제공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합작법인 설립 이후 사업진행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포스코는 인도네시아 합작제철소를 교두보로 삼아 연간 3,000만톤 이상 철강제품을 수입하는 동남아 시장을 선점한다는 전략이다.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현재 추진 중인 인도 오리사주 제철소, SAIL사와의 합작제철소를 중심으로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 현지 생산·가공·판매체제를 갖추게 돼 시장지배력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철강협 수급전망>철강 설비 신증설 올해도 꾸준 현대제철 당진 1·2고로, 포스코 신제강·광양 후판공장 등

철강설비 신·증설이 올해도 꾸준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특수형강, 화인베스틸, 포스코, 유니온스틸, 동부제철, 동국제강, 함양제강, 현대제철의 투자에 이어 올해에도 현대제철, 포스코, 세아베스틸, 세아제강 등의 설비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설비를 신증설하는 업체들의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현대제철은 ▲당진 1고로(420만톤) ▲당진 열연공장(350만톤) ▲당진2고로(420만톤)이 있고 포스코는 ▲광양 신제강공장(280만톤) ▲광양 후판공장(250만톤) 등이 있다. 또한 세아베스틸의 군산 봉강라인 증설과 세아제강의 군산 컬러라인 합리화 등이 급격한 투자로 주목을 받았다.

<철강설비 신증설 현황>

연도	회사명	설비	능력(천톤)	시기	비고
2010	현대제철	당진 No.1 고로	4,200	'10. 4	증설 (*'10.1. 하역)
		당진 열연공장	3,500	'10. 4	증설
		당진 No.2 고로	4,200	'10. 11	신설(하역)
	포스코	광양 신제강 공장	2,800	'10. 7	신설
		광양 후판 공장	2,500	'10. 8	신설
	세아베스틸	군산 봉강라인(증설)		'10. 3	+300
2009	세아제강	군산 컬러라인(합리화)		'10.	+20
	한국특수형강	100톤 전기로(형강용)	900	'09. 3	신설
	화인베스틸	장남 환연공장(조선용형강)	400	'09. 3	신설
	포스코	광양 4고로 보수	3,300 ~4,300	'09. 2~7	+1,000
		1열연 합리화		'09. 5~6	+700
	유니온스틸	No.5 CGL	370	'09. 6	신설
		No.5 CCL		*	+78
	동부제철	160톤 전기로 2기	2,600	'09. 7	신설
		열연	3,500	*	신설
	동국제강	당진 후판공장	1,500	'09. 11	신설
	함양제강	70톤 전기로(단조용)	120	'09. 12	본격가동은 '10년 하반기
	현대제철	당진 후판공장	1,500	'09. 12	신설

▲자료: 한국철강협회

'상생협력' 중기 성장의 토대 기술협력·경영 컨설팅·금융 등 지원... 2~4차 중기로 확대

포스코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공급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기 계약 확대, 2~4차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등 기업생태계 차원의 상생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먼저 포스코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상생협력 프로그램의 혜택을 적게 받아온 2~4차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상생협력 지원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정준양 회장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 1차 협력 중소기업에 국한되고 있어 2~4차 협력 중소기업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2~4차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상생협력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1차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조정 시 2~4차 중소기업 납품단가도 이에 맞춰 조정한다는 내용을 계약 약관에 담도록 유도하는 데 이어, 연구개발(R&D) 활동지원이나 연구실험장비 무상이용 대상을 2~4차 중소기업으로까지 확대함으로써 이들의 기술력 증진과 인적자원 능력 향상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1차 중소기업이 2~4차 협력 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활동에 참여할 경우 SRM(공급업체 평가)에 있어서 인센티브(incentive)를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포스코의 상생협력은 2005년 6월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 신설 이후 지속적으로 이뤄져왔다. 2008년 11월에는 CEO 직속의 상생협력실천사무국으로 확대 개편하고 출자사까지 상생협력을 확산해왔다. 2009년 11월에는 상생협력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포스코패밀리 상생협력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등 상생협력을 기업문화로 체질화해왔다.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포스코는 거래 중소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그 성장의 과실을 바탕으로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상생협력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이에 포스코의 상생협력 활동은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돕는 연구개발 등 기술 협력, 자금난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 교육훈련, 맞춤형 경영컨설팅 등 경영활동의 전반에 걸쳐 있다.

앞으로도 포스코는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상생협력을 통해 거래 중소기업과 상호이익을 추구하고 중소기업 핵심 역량 향상을 지원하며 국가와 지역사회를 포함하는 공동체 전체의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전체 이해관계자와 동반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박지민 dali@posco.com
<자료=상생협력실천사무국>

관련기사: [포스코 기획] 포스코 상생경영

녹색경영 강화 신사업영역 창출 포스코패밀리 녹색성장위 개최... 온실가스 감축방안 등 논의



포스코는 7월 23일 포스코패밀리 녹색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사진은 정준양 회장(가운데)과 출자사 대표들이 손을 맞잡고 녹색경영 강화를 다짐하는 모습.

포스코패밀리 녹색성장 추진현황과 계획을 점검하고 국내외 온실가스 규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2010년 1차 포스코패밀리 녹색성장위원회가 7월 23일 포스코센터에서 개최됐다.

포스코패밀리 차원의 녹색성장에 대한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이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정준양 회장을 비롯해 기술·투자·연구분야 등 포스코 임원 9명과 패밀리사 대표 11명이 운영위원으로 참석했다.

포스코패밀리는 지속적인 저탄소 철강기술 개발을 통해 2010년 상반기에 CO₂ 발생원단위 목표를 달성했으며, 2012년 시행예정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대응해 하반기까지 온실가스에너지 인벤토리를 구축할 예정이다.

포스코·포스코건설·포스코ICT·포스코파워는 스마트(SMART) 원자로·스마트그리드·LED·연료전지 등을 중심으로 녹색성장 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며, 장기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마스터플랜을 달성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녹색생활과 녹색파트너십 부문에서도 부산물 자원화 및 사업장 녹화, 녹색구매, 녹색물류를 통해 원가절감 및 탄소저감에 공헌하고 있으며 대외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부문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있다.

정준양 회장은 강평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은 21세기 새로운 화두이자 패러다임을 인식하고 포스코패밀리는 이를 포스코 3.0, 즉 업(業)·장(場)·동(動) 실현에 적극 활용할 것이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확대하고 패밀리 경영 강화로 시너지를 창출해나가자”고 강조했다.

2009년 2월 신설된 CEO 직속 녹색성장추진사무국은 포스코와 출자사에서 전략적으로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포스코패밀리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했으며,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제철기술, 신재생에너지 분과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Global Green Growth Leader’의 비전을 선포했다.

포스코패밀리는 2018 녹색성장 마스터플랜을 수립, 2018년까지 녹색성장 부문에 7조 원을 투자해 연 매출 10조 원을 달성하고 2020년까지 CO₂원단위 9% 감축을 실현할 계획이다.

박지민 dali@posco.com
<자료=녹색성장추진사무국>

KC코트렐 제철사업부 김규백 (gyuback@kc-cottrell.com)
KC그린홀딩스 지원팀 이보람 (boram@kc-cottrell.com)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동서발전, 인도 석탄화력 건설한다 사하라파워와 1320MW급 MOA체결 부지선정, 사업타당성 검토 PPA 완료

동서발전이 인도에 1320MW급 석탄화력을 건설, 운영한다.

한국동서발전(사장 이길구)은 15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인도 사하라파워(사장 Ashok K Bhargava)와 총사업비 16억 달러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사업에 대한 MOA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의 협력방안에 대해 양사가 올해 초부터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이날 사하라파워 사장단의 동서발전 방문으로 MOA가 체결됐다.

동서발전은 초초임계압 석탄발전소의 건설 및 운영 경험을 통해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발전소 운영 및 건설 기술지원, 정비업무 수행 등 본 사업의 주도적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발전소 건설 기자재 수출 및 준공이후 수십년간의 발전소 운영을 통해 국내 업체에 사업기회 제공은 물론 국내인력의 고용창출과 전기판매 수익 등 부가가치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이미 인도 주 정부의 사업승인은 물론, 부지선정과 사업타당성 검토 및 PPA가 이뤄진 상태로, 주 정부와 약속한 2013년 준공시기 준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올 하반기에 EPC 업체를 선정,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사업착수가 시작될 예정이다.

사하라파워의 모회사인 사하라그룹은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금융, 부동산, 무역 등 다방면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종업원 약 90만명을 거느린 인도내 최대 그룹社 중 하나다.

한편, 동서발전은 글로벌 에너지기업을 목표로 지난 2년간 해외사업을 적극 추진한 결과 필리핀, 괌, 아이티, 칠레, 호주 등지에 진출해 상당한 수익 창출과 함께 해외 운영사업의 노하우 축적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으며, 베트남 남딘 석탄발전소(설비용량 2400MW) 건설사업을 비롯한 여러 건의 해외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

한국전력신문 2010.07.15 [박기진 기자]



▲ 이길구 동서발전 사장(왼쪽)과 Ashok K Bhargava 사하라파워 사장이 1320MW급 석탄화력 건설·운영 MOA를 체결하고 있다.

환율시장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8월 원달러 환율은 7월 전망치보다 내려간 1,160~1,220원

8월 환율은 유로존 우려 완화와 주요 기업들의 실적 호조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를 약화시킴에 따라 대내적 원화 강세 요인이 좀더 부각되면서 7월 중순 이후의 하락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미국 경기지표 부진 속에 하반기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는 여전히, 국내적으로는 당국의 개입 경계, 계절적 달러 수요 증가 등으로 환율 하락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달러/원 일간 Chart(by Reuters)



지난 7월 유로존 스트레스 테스트, 국채 발행, 주요 기업 실적 발표 등 주요 이벤트들을 확인함에 따라 8월에는 뚜렷한 모멘텀 부재로 글로벌 외환시장 역시 방향성 보다는 변동성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PIGS 국가들의 국채만기가 몰려 있던 7월을 무난하게 지냄에 따라 올해 2분기 금융시장을 달궜던 유로존 재정 이슈는 점차 중심에서 멀어지는 가운데 향후 금융시장은 주요국의 펀더멘털로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이러한 금융시장 분위기는 그동안 견조한 펀더멘털을 상대적으로 반영하지 못했던 원화 환율이 다시 주목받는 계기가 되며, 점차적으로 원화 강세 압력이 강화되고 있다. 수출 호조의 지속, 선박, 해외건설 등의 수주도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고, 7월 금리 인상 이후 연내 1~2회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기대되는 등 원화강세 요인과 7월 이후 국제금융시장의 안정, 글로벌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리스크, 외국인의 적극적인 원화 포지셔닝 부담, 당국의 시장 개입 및 규제 리스크로 환율은 강한 하방 경직성을 나타냈다.

하지만 해외금융시장의 안정, 각국간 펀더멘털의 차이로 초점이 맞춰지는 글로벌 금융시장 분위기, 원화의 상대적 저평가 인식에 따른 외국인의 한국 주식 및 채권 매수세 재개 등으로 조심스러운 원화 매수 시도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를 떨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외국인의 원화 매수에 대한 소극적 행보, 당국의 시장 개입 및 규제에 대한 부담, 계절적 달러 수요 등은 지난 1~4월과 같은 원화 절상 압력을 가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8월 미달러는 하반기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약세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향후 재정 긴축이 불가피한 유로존의 경기 회복 둔화, 시차를 두고 나타날 엔화 강세 효과 등을 고려할 때 미달러의 추가 하락 폭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달러는 유로존 호재의 희석, 단기 과매수 부담 등으로 추가 고점 높이기 보다는 1.20 달러대 후반의 소강상태가 예상된다. 달러/엔은 5월 이후의 급락세를 접고 일본 경제와 정치에 대한 부담, 개입 경계 등이 지지력을 제공하면서 조심스러운 반등시도가 예상된다. 7월 들어 국내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낮아지고 있다. 5.6월 급등락에 따른 피로감, 수출입업체들의 철저한 저가매수, 고가 매도 전략, 지난 1월과 4월 원화 매수에서 재미는커녕 손절(stop loss)에 급급했던 외국인의 소극적 매매패턴이 빚어진 결과다.

특히 외국인이 원화뿐 아니라 원화자산 매입에도 비교적 소극적인 패턴을 보임에 따라 향후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가 시에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줄여주는 결과를 예상해 볼 수 있다. 급격한 자본 유출입을 매우 경계하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측면도 부인할 수 없으나 작년 4월부터 시작된 외국인의 과도한 원화자산 매입 규모에 대한 부담이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라 하겠다.

기술적으로 7월중 60일선이 하향 돌파된 달러/원 환율은 1차 지지선인 1170 원(6월 저점이자 61.8% 조정레벨)의 지지여부가 중요하다. 이 선이 하향 돌파될 경우 지난 4월 이후 상승 추세가 무산된 것으로 판단하며, 다음 지지선인 1150 원을 향한 하락세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반면 1220 원은 강한 저항선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8월 환율은 1160~1220 원 사이에서 등락이 예상된다.

출처: 삼성선물 2010.07.30 8월 환율전망

KC 그린홀딩스 유민정 (minjeong@kc-cottrell.com)

원자재 시장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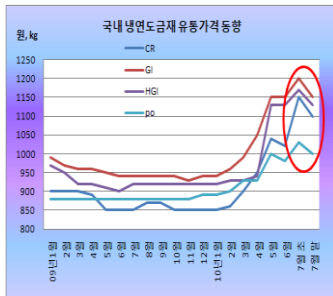
고객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냉연유통價 "대책없는 추락"

- CR GI EGI 각각 톤당 5만원 씩 하락..시중에는 저가 물량 여전
- 8월 들어서도 가격 상승반전 기대감 약해



냉연유통가격이 속절없이 하락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냉연도금재 가격은 3분기 제조사들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하락세가 완연하다.

냉연강판(CR) 공장도가격은 두께 1mm, 폭 1,218mm, 길이 2,438mm 포스코산 기준 톤당 110만원 수준으로 지난 지난주 5만원이 하락했다. 포스코산 CR의 공장도 가격은 톤당 102만원, GI와 EGI 가격은 톤당 112만원, 113만원으로 제품을

판매해봤자 이익을 내기 어렵다고 유통업체들은 말하고 있다. 특히 GI와 EGI의 경우 3분기 공장도 가격이 오른 제품을 이같이 팔 경우 손해만 커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상승한 가격대보다 훨씬 저렴한 제품들이 시중에 나돌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산 CR GI EGI 일부 제품들의 경우 시중에서 90만원 대에도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제품들은 3분기 가격인상 이전의 구 단가 재고들로서 2차 유통업체들이 파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시중 유통가격 하락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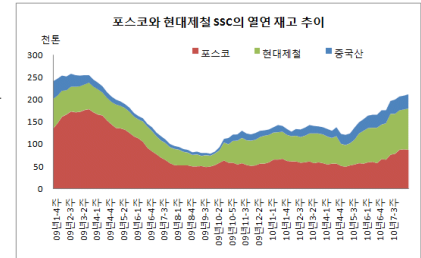
GI의 경우 유통가격 하락세가 더욱 완연한 상황인데 이는 저가 중국산 GI의 국내 유입 영향도 크다. 중국산 GI는 최근 몇개월간 다량 수입됐으며, 중국산 GI의 국내 유통가격은 톤당 110만원 수준으로 국내산 대비 10만원이나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 냉연스틸서비스센터(SSC) 등 유통업체들은 8월 1일부터 톤당 5만원의 인상을 계획했으나 이처럼 가격이 내려가자 유통가격 인상에 대한 방향성을 상실한 모습이다. 포스코 냉연SSC 관계자는 "일단 CR 기준 톤당 12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수요자들에게 통보 하겠지만 현재 돌아가는 정황상 실제 파는 가격은 이보다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틸데일리 2010-07-27 기사 요약

열연SSC, 수요 부진에 재고 급증·14주 연속 증가

포스코와 현대제철 스틸서비스센터의 열연강판 재고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열연SSC의 열연 재고는 7월 4째주 기준 21만2,000톤으로 나타났다. 14주 연속 재고 증가가 이어지고 있다.



재고 증가는 국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 열연코일 재고는 18만톤으로 6월말대비 3만2,000톤 증가했다. 한달 사이에 7.1% 증가한 것이다. 재고 증가 시점이었던 지난 4월 중순에 비해서는 두배에 육박하는 재고 증가를 보였다.

SSC 관계자는 "재고가 부담이 될 정도는 아직 아니다"라며 "8월 현대제철의 공급량 감소가 예정돼 있어 재고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포스코산 재고도 9만톤에 육박했다. 포스코 SSC의 재고 증가는 포스코와의 약정량 이행과 시중 경기 부진이 가장 큰 이유. SSC 관계자는 "수요 부진으로 판매량보다 구매량이 많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스틸데일리 2010-08-04기사 요약

[철강협회 하반기 전망-형강] 일반형강 유지·H형강 감소

올 하반기 형강시장은 일반형강을 중심으로 전년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하반기 수요는 상반기대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철강협회의 "2010년 하반기 철강재 수급 전망"에 따르면 하반기 형강 소비는 민간 건축 및 조선용 수요 부진 등으로 증가세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 상반기 일반형강 소비는 전년대비 45.5% 증가했으나 하반기에는 0.6%의 증가에 그칠것으로 전망했다.

생산량은 H형강은 부진이 예상되나, 설비투자 호조 지속에 따라 기계류 생산이 증가, 일반형강을 중심으로 전년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설비투자 증가율은 17.6%로 2009년 -8.9%에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수입은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국내수요 감소로 H형강을 중심으로 4%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스틸데일리 2010-07-17기사 요약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 통합

경제 통합

기획특집1



KC 리더들은 이번 여름휴가를 어떻게 보내실지 or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말만 들어도 가슴 설레는 여름휴가 씨즌입니다. 열심히 일한만큼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자기 계발 역시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기업 또한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KC의 리더들에게 이번 휴가를 어떻게 보내실 지 혹은 어떻게 보내셨는 지 여쭙봤습니다!

KC환경서비스
이재영 부사장님

無 계획이 나 계획

편안하고 즐거운 휴가 되세요~~~

휴가 ^^ 생각만해도 절로 입가에 웃음이 베어 나오는 단어입니다. 여름휴가는 아무래도 충전의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족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저는 여행갈 때 항상 읽고 싶은 책을 지참합니다.(돌아오는 짐을 쌀 때는 매번 애물단지 취급을 하고 그 무게 때문에 한 번 더 짜증을 내지만 그래도 책이란 것이 있어 주기만 해도 흐뭇한 동반자입니다.)

곳감 빼먹듯이 편안하게 흐르는 물처럼 유유 자적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고 삶의 액센트이자 활력소인 휴가기간, 좋은 것 많이 드시고, 예쁜 추억 많이 만드시고 부족한 잠도 많이 많이 보충하십시오. 건강한 모습으로 앞으로의 1년도 빠샤 ^^

안성유리
김정완 사장님

여름 휴가는 잠시나마 꼭 짜여진 일상에서 벗어나 일과 더위에 지친 심신을 재충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조용한 곳에서 쉼을 마시며 마음껏 게으름을 피우고 싶은 생각이 많지만, 가족들을 생각하면 내 욕심만 채울 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ㅠ.ㅠ

협상교육 과정에서도 인정하였듯이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배우자나 특히 자녀들과의 의사소통이 가장 예민하고 어려운 과제라 생각됩니다. 특히 청소년인 아들과의 대화나 의견 조율은 일방적이 되기 쉽고 양자가 모두 만족하는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힘듭니다.

이번 여름휴가에는 자녀들이 스스로 마음을 열고 부모와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함께 여행을 하고 최신 유행 패션이나 신곡 등 자녀들의 관심사에 관심을 표명하면서 대화를 풀어나가는 것도 좋겠지요.

개인적으로 나는 지난 4년간 외국에서 혼자 공부하면서 생활하였던 아들과 미래 희망과 포부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볼 예정입니다. 돌이켜 보면 나도 지금의 아들 나이 시절에 명확한 가치관이나 직업관 또는 꿈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듣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네요. 고등학교생인 딸도 임시 스트레스를 잘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토의를 해 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올해 여름 휴가는 가족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클레스트라
하두곤 부사장님

극장 한곳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술 영화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극장이라서 일반 멀티 플렉스 극장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영화를 자주 상영합니다.

아트하우스 모모 극장은 예술 영화 중에서 전문가들에 의해 선별된 영화를 볼 수 있는 국내 최초의 대학 캠퍼스 내 상설 영화관입니다.

이화여대 정문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보이는 ECC건물, 도미니크 페로(1953년생 프랑스 건축가)가 디자인한 이 건물은 유리과 철을 이용해 기하학적이면서 리듬감이 느껴집니다. ECC B4층에 가면 감각적으로 디자인된 Ticket box가 눈에 띕니다. 극장 내부는 다소 작고 경사가 심하지만 음향시설이 뛰어나 감동을 더해 줍니다.

가끔 이 극장에 들려 지나간 영화 중에 못 본 영화를 즐기곤 했는데, 이대 앞에서 느리게 걸으면서 상가 구경도 하고 여유롭게 캠퍼스 내에 있는 극장에서 좋은 영화 한편 보는 것은 어떠실런지....

KC삼양정수
장명근 사장님

오랜만에 멀리서 돌아온 딸, 그리고 아내와 제주도 여행을 찾았습니다. 서귀포시 안덕면은 제일 동포3세건축가인 이타미준(尹丹潤)이 설계한 건물이 다수 있는 지역인데 비오토피아, 방주교회, 그리고 포도호텔 등, 정말 멋진 건축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현대건축 3대 거장중의 한 사람인 Mies van der Rohe 가 언급한 'Less is More' 를 이곳 건축물들을 통해 실감하며 우리의 삶에서 닦치는 여러 가지 욕망에 대한 절제를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캄캄한 밤하늘의 별, 밝게 빛을 내는 반딧불, 방주교회에서의 묵상과 찬양, 앞으로 오래 기억에 남을 가족 여행이었습니다. 건축 자체를 현대미술로 삼는 이타미준의 건축물 이외에도 섬치코지에 있는 안도타다오(安藤忠雄)의 지니어스로서이, 글래스 하우스 등을 포함, 자연을 거스리지 않고 대지와 순응하고 호흡하는 건축물과의 만남을 통해 진정한 시너지를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제주 건축 테마여행'을 여러분께 권해 드립니다.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 통향

경제 통향

기획특집1



종합환경기획 고재영 사장님

1992년부터 95년까지 파리에 소재하는 OECD 에서 근무한적이 있다

프랑스 사람들은 영국에 대한 상대적인 열등감 내지 견제 심리가 강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영어에 서툴거나 혹시 잘 알아도 웬만해서는 영어로 대화하려 들지 않는다

그래서 얼핏 보면 프랑스 사람들이 오만해 보이기도 하는데 지내면 지낼수록 융통성이 많고 어느 분야에서건 소위 nego 가 가능한 백성들이다

예를 들면 하한기 동안 텅 비었던 골프장이 여름 무더위가 가시면 그 동안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요금을 인상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달라는 대로 주기 보다는 왜 일방적으로 올리냐고 항의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다음부터는 한국사람들은 전부 다른 골프장을 이용하겠다고 협박(?)을 할 경우 대부분의 경우에 내가 명단 적어내는 한국사람들에 한하여 할인요금을 적용하겠다고 타협적인 제안을 해온다.
심지어는 외국(스페인) 여행 갔다 차 안에 보관하고 있던 물건들을 밤사이 전부 도난 당한 후 프랑스로 돌아와 대충 짐작 가는 대로 가격을 적어 보험료 청구를 했더니 며칠 후에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내가 신고한 금액 그대로 수표가 도착한적도 있었다 (수표를 받고서 잠깐 동안 액수를 부풀릴걸 그랬나 하고 후회 아닌 후회를 한적도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 와서 솔직히 고백합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참으로 복을 많이 받은 것 같다.

나는 프랑스에서 3년간 일한 후에야 겨우 그들이 왜 직장에 다니는지 깨달았다.

나는 (우리 한국사람들은) 일하려고 살고 일하다 보니 지치니까 쉬려고 휴가를 가는 것이 아니고 일하던 관성이 지속되어 새로운 차원의 전투형태인 단기간 다목적 업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휴가(보다 엄밀하게 말하면 고행)를 가는 반면에 프랑스 사람들은 휴가철 동안에 실컷 즐기고 쉬기 위해서 일한다는 사실을...

파리의 시떼섬에 있는 노트르담 성당(Notre Dame 영어로 직역하면 Our Aunt , 우리말로 번역하면 우리들의 존경하는 아주머니, 즉 성모마리아의 애칭이 노트르담이며 대부분의 큰 도시에는 노트르담 성당이 있고 그 마을의 최고 높은 성직자가 계시는 곳인 중심성당임. 따라서 KC 직원들은 앞으로 적어도 파리의 노트르담 성당을 말하려고 할 때는 Notre Dame Cathedral in Paris 라고 하세요)인근의 가게를 기웃거리면 서두에 말했듯이 자존심 때문에 영어하기를 싫어하는 프랑스인 가게 주인들이 한국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한국사람인지 알았는지 으레 내뱉는 단어가 "아줌마" "안 비싸요" "빨리빨리"라는 세 단어이다.

이것만 봐도 한국 사람들이 어찌나 서두르는 백성들이고 동시에 상품구매력이 있는 국민들인지 짐작이 가지지 않는지요

KC 직원 여러분들께 다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서론이 너무 길었나 봅니다

짧은 휴가 기간 동안 제발 여러 곳 돌아다니고 여러 활동 하면서 어려운 살림 가증시키지 마시고 평소에 꼭 가고 싶었던 곳 한곳만 정해서 며칠간 머물면서 몸도 마음도 그야말로 Vacance (비움)의 시간을 갖는것이 어떨까요. 낡은 것을 비우지 않고는 더 좋은 새것들을 채울 수 없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휴가 동안 어머니 자식 내팽개치고 집사람과 3박4일 동안 양양의 솔비치에서 아무 하는 일 없이 먹고 자고 쉬고 놀고 하면서 평생 처음 휴가다운 휴가를 보냈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참고하세요.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 통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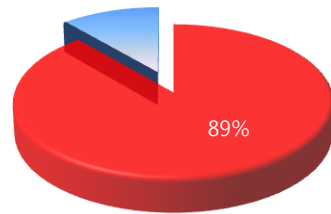
경제 통향

기획특집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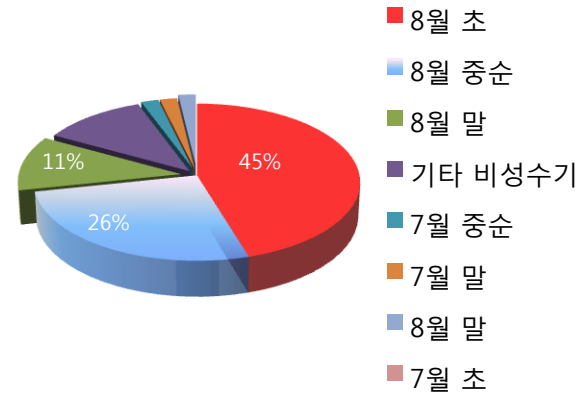
2010년 여름휴가에 대한 KC인들의 말, 말, 말

▷ 본 앙케이트는 102명의 KC인들의 응답을 바탕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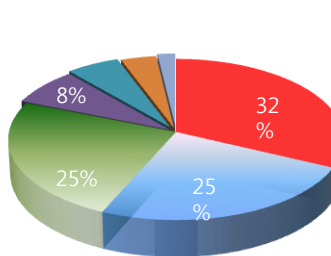
1. 올해 여름휴가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혹은 다녀오셨습니까) 2. 여름휴가는 언제쯤으로 계획하십니까? (혹은 언제 다녀오셨습니까)



■ 그렇다
■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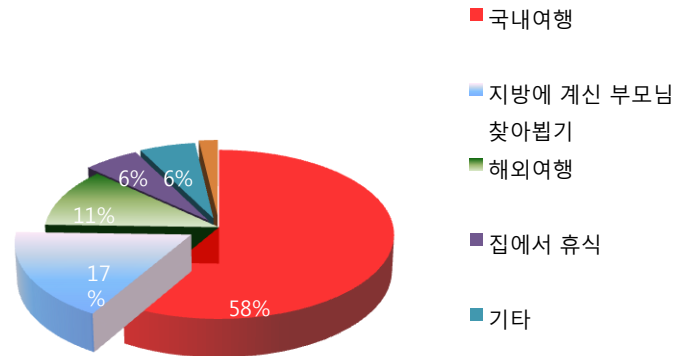


3. 휴가 기간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 2박3일
■ 3박4일
■ 4박5일
■ 1주일이상
■ 1박2일
■ 기타
■ 5박6일

4. 올해 휴가로 계획하는 일정은 무엇입니까?



■ 국내여행
■ 지방에 계신 부모님 찾아뵙기
■ 해외여행
■ 집에서 휴식
■ 기타
■ 독서와 함께
■ 미술관/박물관 등 문화활동

CONTENTS

인사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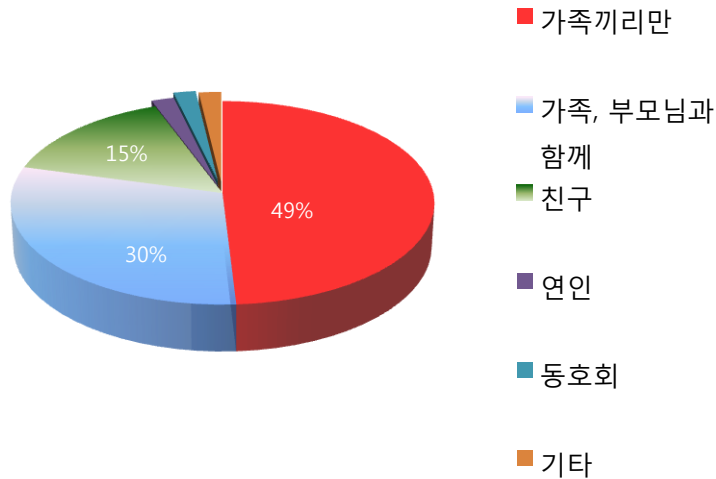
KC네트워크 소식

고객 통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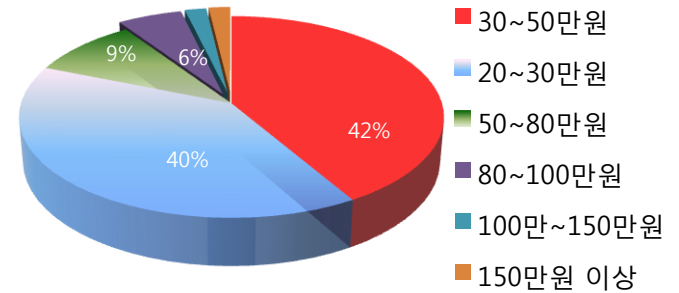
경제 통향

기획특집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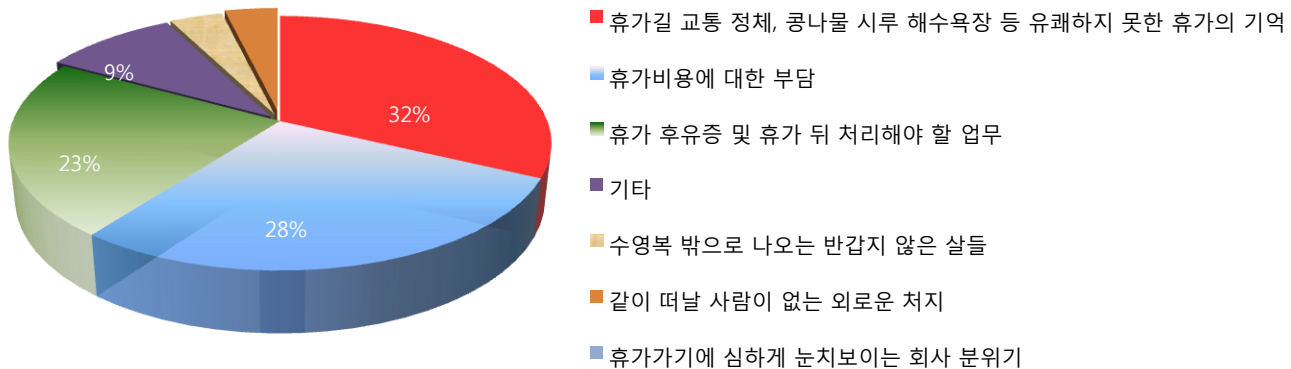
5. 올해 휴가는 누구와 함께 다녀오실 예정입니까?



6. 일인당 적당한 휴가 비용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7. 여름휴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 통향

경제 통향

기획특집1

8. KC 人에게 여름휴가란 () (이)다 !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 통향

경제 통향

기획특집2

지난 한달 간 KC코트렐 하계인턴사원으로 근무했던 Mr Araganones의 "KC코트렐 그리고 한국에서의 한달" 이라는 글입니다. 그 동안 수고한 Mr Araganones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 만날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

KC Cottrell July of 2010

I am from Spain and I am studying business management in the University of IQS, in Barcelona. I came to Seoul South Korea, for working in KC Cottrell and meet the Korean people and their costumes.

South Korea is a country that has surprised me from the first moment I arrived. In just 50 years after the Korean War, it is one of the first countries in services and technology, and very few countries can say this about themselves. The Korean people are polite, friendly and competitive; hence I have been so easy to feel at home during this month.

I enjoyed working in KC Cottrell, because being in this company made me feel part of a very important society of Korea, which operates in several countries, like China, UK and USA among others. There are also a good working environment for employees and a good relationship between manager and employee, of which I was participating because of the rapid acceptance of my coworkers, whom I am very grateful.

I think that my experience in South Korea and in KC Cottrell was really good for myself, for opening my mind to other cultures. I have to thank this whole experience to Mr. Lee, Mr. Taeil and all the employees in this company, providing a time and space for me to stay here making the most special time during this month.

Miquel Araganones Morros

